

저무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의 부상

글. 김인겸 역사문화 칼럼니스트

테베의 패권

기원전 383년 스파르타는 테베의 카드메이아를 점령하고, 친 스파르타 과두정권을 세웠다. 그러나 이 정권은 얼마 후 아테네에서 망명한 펠로피다스 등 민주파에 의해 타도되고 일시적으로 해체되었던 보이오티아 동맹도 재건되었다. 펠로피다스와 그의 친구 에파미논다스의 리더십으로 테베의 국력은 단기간에 가파르게 성장해, 신성부대 - 일설에 의하면 동성에 군단이 있었다고 함 - 의 활약으로 기원전 371년 레옥트라에서 스파르타군을 사선대형¹⁾ 전법을 써서 격파했다. 불패의 신화를 자랑하던 스파르타 육군의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공세로 전환한 테베는 아르카디아 연방의 성립에 힘을 빌려주는 한편, 스파르타 국가 체제의 주요한 생활 기반인 메세니아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메세니아가 분리됨으로써 스파르타의 쇠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다.

테살리아에서는 페라이의 참주 이아손이 테살리아를 통일한 뒤 호시탐탐 남쪽으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었다. 테베는 거기서도 페라이의 후계자를 타도하고 델

포이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땅을 장악했다. 테베는 암피폴리스와 케르소네소스에 야망을 품은 아테네를 몰아내고, 마케도니아와 우호 관계를 맺었다. 기원전 362년 아르카디아 연방이 엘리스와의 국경 분쟁을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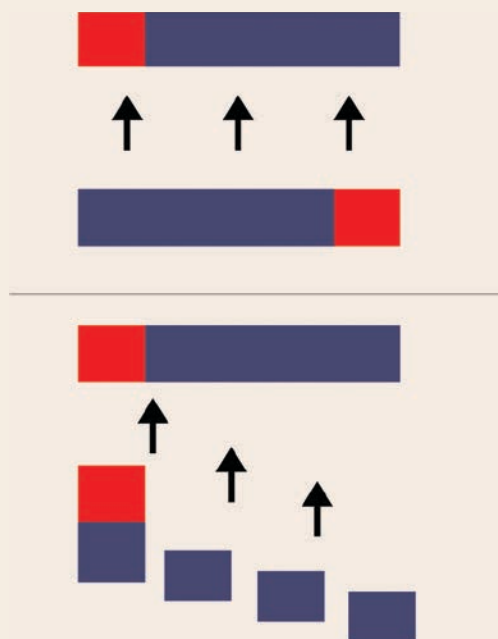


그림 1. 레옥트라 전투의 사선대형

1) 사선대형 : 사선대형 전술은 서구의 전쟁사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전술이다. 사선대형 전술을 통해 병사 개개인의 전투력뿐만 아니라 대형과 전술, 전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사선대형 전법은 훗날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카르타고의 한니발에 의해 더욱 발전되어 '망치와 모루' 전술로 이어졌다. 이 전술의 핵심 개념은 선택과 집중이다.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중장보병 밀집대형(팔랑크스)은 일반적으로 좌익과 중앙보다 우익에 정예병력을 배치했다. 그러나 사선대형을 처음 쓴 에파미논다스는 역발상으로 좌익에 정예병력을 배치하여 적의 우익 심장부를 바로 찔렀다. 물론 사선대형은 적이 그 의도를 파악하면 대비책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전법은 아니었다. 사선대형은 유연한 사고를 가진 지휘관이 상황에 맞게 사용할 때 위력이 배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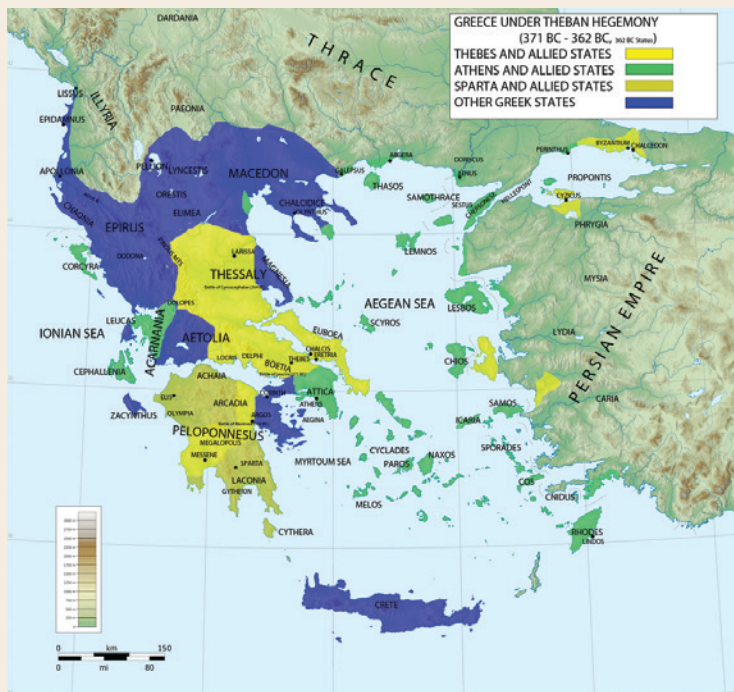


그림 2. 테베 전성기의 그리스 지도, 노란색이 테베와 동맹국의 세력권

기로 분열하자 테베와 스파르타가 각각 양측에 개입한 결과 만티네이아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승패는 결정적으로 갈리지 않았지만, 이 전투에서 테베는 에파미논다스를 잃고 이후 펠로폰네소스에서 병력을 철수했다.

[그림 1]은 일반적인 중장보병 밀집대형의 전투 구도이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우익에 정예병력을 배치하기 때문에 전투는 보통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진행된다. 그러나 아래의 사선대형은 좌익에 정예병력을 배치하여 적의 핵심 전력과 부딪치게 했다. 레우크트라 전투에서 허를 찔린 스파르타군은 테베군에 패퇴했다.

아테네의 부흥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기원전 378년 아테네는 동맹 관계를 조직화하여 해상 패권을 회복할 발판을 마련했다. 제2차 아테네 해상동맹이라 불리는 아테네의 재무장으로 함선은 100여 척까지 증강되었다. 동맹의 구성 원칙을 기록한 비문(碑文) - 기원전 377년의 민회 결의 - 에 의하면 이 동맹은 스파르타의 명에

로부터 그리스를 해방함을 목표로 삼고, 아테네는 동맹 가맹국의 자치나 정체에 간섭하지 않으며, 공납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을 의결했다. 또 아테네인이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동맹국 영토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되고, 이를 동맹 총회가 감시하기로 했다. 이는 모두 과거 델로스 동맹의 과도한 지배와 억압에 대한 반성을 의미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폴리스들은 일단 아테네를 믿고 동맹에 가입하여 가맹국 수가 늘어났지만, 아테네는 다시 배신했다. 예컨대 공납금 대신 군역 대납금(syntaxis)으로 교묘하게 명칭만 바꿔 가맹국을 착취하였다. 또 레우크트라에서 스파르타가 패배한 뒤에도 동맹을 해체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유력한 가맹국 로도스, 키오스 등이 카리아의 마우솔로스 왕의 지원을 받아 동맹에서 이탈하여 아테네와 전쟁을 치른 끝에 2년 후에는 독립하는 등 아테네는 예전의 영광을 완전히 되찾는 데 실패했다.

마케도니아에 대한 아테네의 대응

- 이소크라테스와 데모스테네스

기원전 4세기 후반은 그리스 세계와 마케도니아 왕국의 항쟁, 마케도니아의 패권, 그리고 그 패권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진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 등 주요 사건들이 이어진다. 이 시대 아테네의 정국은 친 마케도니아파와 반 마케도니아파 사이에서 크게 동요하고 있었다.

수사학 학교를 운영하며 당시 아테네의 여론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던 이소크라테스는 현실 정치에는 무관한 순수 학자 유형의 인물이었다. 그는 380년에 발표한 글에서 전체 그리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 지휘 아래 하나로 뭉쳐야 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가 이미 발칸 반도에서 세력을 떨치기 시작한 기원전 346년에는 그 구상을 확대·변형하여 전체 그리스가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의 리더십을 구심점으로 결집해야 함을 주장했다. 필리포스에 보내는 공개서한의 형식을 띤 그 글에서 이소크라테스는 페르시아를 무찔러 최소한 소아시아 연안 지역 만이라도 수복하면 그곳에 그리스의 빈민이나 부랑자



그림 3. 이소크라테스 흉상(푸시킨 박물관)



그림 4. 데모스테네스 흉상(루브르 박물관)

등을 보내 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피력했다.

한편 데모스테네스는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후견인에게 사기·횡령당한 사건을 계기로 오늘날의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정 변론 전문가의 길로 들어선 인물이었다. 그는 기원전 346년에 아테네와 필리포스 사이에 필로크라테스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 교섭사절단의 일원으로 마케도니아를 방문한 경력이 있었다. 그러나 필리포스가 케르소네소스 지역에 접근해 아테네의 흑해 방면에서의 거점을 심각하게 위협함을 우려하던 중 필리포스가 포키스 문제를 계기로 남쪽 그리스 세계에 개입하려 하자 마케도니아와의 평화 노선을 단념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그리고 에우블로스의 소극적 방위정책을 비판하는 주전파의 논객이 되어 아테네 시민들에게 필리포스의 야욕에 맞서 쫓겨갈 것을 호소했다. 마케도니아에 대한 그리스의 항전이 사실상 좌절되는 카이로네이아 전쟁 후에도 그는 반마케도니아 입장을 고수했다. 마케도니아에 대한 저항 운동을 위해 페르시아의 원조까지 받았지만, 데모스테네스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되고 말았다. 감옥에서 탈주한 뒤 그는 실망과 무기력 속에서 망명 생활을 전전하였다. 알

렉산드로스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그리스 전체가 마케도니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쫓겨나자 데모스테네스는 마침내 아테네로 귀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원전 322년 크라논의 패배로 마케도니아 군대가 다시 아테네로 진주하자 그는 카라우레이아로 몸을 피해 포세이돈 신전에서 음독자살했다.

마케도니아의 부상을 정확히 읽고 이 흐름에 편승한 이소크라테스, 그 반대편에서 폴리스 민주정의 자유와 독립을 부르짖은 데모스테네스. 이 두 인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관점, 어떤 가치관을 지지하는지에 따라 상반된 두 인물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 2세

필리포스 2세는 어린 시절 테베에 인질로 보내져 생활하던 중 그곳에서 에파메이논다스의 사선대형 전법을 익힌 적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필리포스 2세는 기원전 359년 마케도니아의 왕위에 오른 직후 부국강병을 모토로 내세워 전면적인 군제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마케도니아의 국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는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초하여 노련한 외교수완과 탁월한 군사작전을 적절히 안배하여 왕국의 판도를 지속적으로 넓혀갔다. 필리포스 2세는 트라키아를 복속시켜 판가이온 금광을 손에 넣어 왕국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기원전 348년에는 칼키디케 연방의 올린토스 시를 포위·함락했으며, 그 주민을 노예로 팔았다. 아테네는 동맹 도시가 포위당하고 있는 동안 그 도시의 지원 요청에 겨우 용병을 파견하였으나, 용병이 도착했을 때 올린토스는 이미 함락된 뒤였다. 이 사건은 당시 아테네가 에우보리아를 지키는 데 골몰하고 있었다고 해도 올린토스를 중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것은 필리포스 2세의 행동방식을 그리스인에게 충격적으로 각성시킨 사건이었다. 즉 그는 올린토스 침략을 감행하면서 아테네와의 동맹에 별로 구애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리포스 2세는 중부 그리스에서도 포키스가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영역의 땅을 경작한 사실에서 실마리를 얻어 제3차 신성전쟁에 개입해 테살리아를 지배하

에 두고 테르모필레로 달려갔다. 그러나 아테네가 파견한 군단을 무리해서 돌파하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철수했다. 트라키아로 다시 방향을 바꾼 필리포스 2세는 페리안토스를 포위했지만, 페르시아의 개입으로 함락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는 훗날 페르시아 원정의 사전 포석 중 하나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다.

아테네가 훨씬 더 두려워해 오던 사태가 결국 터지고 말았다. 곡물을 자급자족할 수 없는 아테네는 주로 흑해 방면의 곡물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수송로 상의 요충지인 비잔티온과 에우보이아에 필리포스 2세는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다. 기원전 340년 필리포스 2세가 비잔티온 부근에서 곡물수송단을 나포하면서 마케도니아와 아테네는 교전에 돌입했다. 다행히도 이때는 에우보이아도 비잔티온도 필리포스 2세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필리포스 2세는 압파사 시를 응징하기 위한 제4차 신성전쟁에 개입해 그곳을 점령하고 이어 델포이에서 보이오티아의 레바데이아를 향해 진군했다. 테베는 그런 필리포스 2세의 움직임에 당황했고, 그래서 속적 아테네에 설득되어 서둘러 동맹을 맺고 공동대응을 꾀했다. 그리하여 기원전 338년 8월 카이로네이아에서 그리스 세계의 운명을 건 결전을 치르게 된다. 이 전투에서 필리포스 2세의 기묘한 책략과 18세의 왕자 알렉산드로스의 활약에 힘입어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연합군을 패주시켰다. 그 결과 테베는 곧바로 항복했고 테베에는 친 마케도니아 정권이 들어섰다. 아테네에 대한 필리포스 2세의 조치는 관대했지만, 그리스에 대한 필리포스의 패권은 확고해졌다.

범 그리스 연맹

필리포스 2세는 독립을 표방하면서 마케도니아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는 스파르타를 무시한 상태로 전 그리스 도시들의 대표를 코린토스에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다. 범 그리스 연맹은 그렇게 탄생했다. 이 연맹은 각 도시의 자치독립 보장, 기존 정치체제의 고착화, 빈민의 요구사항이었던 부채 말소와 토지 재분배와 같은 사회경제 질서의 혁명적 변화 금지, 그리스 도시



그림 5. 아폴로 두상이 새겨진 필리포스 2세 금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그림 6. 헬레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필리포스 2세 흉상(칼스버그 미술관)

간의 무력 충돌 금지 등을 주요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필리포스 2세는 자신의 최종 목표인 페르시아 정벌을 위한 병력공급원을 확보했다. 그리스 제패는 이 궁극적 목표의 전제로, 출발점에 불과한 것으로 아테네에 대한 관대한 조치는 다름 아니라 아테네의 해군력 활용을 애초에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기원전 377년 범 그리스 연맹은 페르시아 전쟁을 복수한다는 명분으로 페르시아 원정을 결의했다. 범 그리스 연맹은 그리스 세계가 앓아 온 두 가지 중병, 즉 도시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 상태, 도시 내부의 고질적인 당파싸움을 치유하고 마침내 전반적인 평화상태 - 당시 그리스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보통 평화’ - 를 이룩했다. 하지만 부유층과 기득권층에 유리한 기존 체제의 고착화와 당쟁의 금지는 시민들의 평등을 추구하는 운동이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했다. 예컨대 아테네에서는 부유층을 힘들게 해오던 악몽과도 같은 공공봉사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런 뜻에서 범 그리스 연맹은 정치적으로 그리스 발전의 근간이었던 폴리스 사회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앗아갔다. 필리포스 2세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그리스의 전성기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